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그것이 그냥 녀두리인줄만 알고 있다가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후론...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 머 니 . . . . . 죄송해요....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b>갈보리 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점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4권 11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3월 17일
☎520-9464/021-292-1639.☒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거룩해 진다는 것**



몇년 전 브리티시 위클리(British Weekly)는 편집자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편지를 게재하였습니다.

"목사님들은 설교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아주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해 왔고 그 동안 제 추산이 정확하다면 적어도 3천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놀라는 것은 그 설교 중에 단 한 편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시간을 달리 썼다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편지를 두고 수 주간 평신도들과 성직자들에 의해 설교 찬반론이 산사태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음과 같은 한 편지가 그 논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는 32,850회의 식사를 하였습니다. 거의 저의 아내가 요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그 많은 식사 중 한 끼의 메뉴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식사를 할 때마다 매끼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저는 그 많은 식사가 없었더라면 오래 전에 이미 굶어죽었을 것이라는 분명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은혜롭게 들었던 말씀을 실생활의 갈등 속에서 다 기억할 수 없지만 맛있게 먹은 음식이 몸의 양분으로 공급된 것처럼 은혜롭게 들은 말씀은 기억과 상관없이 영의 양식으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됨은 단 한끼의 별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별식을 포함한 보통 식사로 되는 것입니다

<b>엄마가 딸에게</b> 기도를 자주 하거라 기도할 때 마음에도 없는 많은 말보다 말없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더 낫다	<b>아버지가 아들에게</b> 공부에 최선을 다해라 공부를 게을리하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여한 많은 잠재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공부해라
---	--

#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갈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36장	다 갈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60(고난주간 2)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138장	다 갈 이
기 도 Prayer		이기중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5:27-39(신 97)	인 도 자
어린 이 시 간 Sunday School		
성 가 대 찬 양 Couple's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누가와와 여행" -좋은 신앙인 세리 마태-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169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갈 이
*헌 금 기 도 Offeratory Prayer	(기도후 착석)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갈 이
위 탁 의 말 씀 Encouragement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 <3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Tea Time	주 일 안 내
3일	이광희	최재학	권용일, 김종건	사카시다, 최기향
10일	이규임	권용일	김성국, 박일영	이종길, 송정남
17일	이기중	김교섭	양경배, 윤형권	박병민, 이기중
24일	이재영	김경숙	이광희, 이재영	이재영, 김경숙
31일	이지영	김동숙	이종길, 이종운	정덕수, 김순자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 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달살뜰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어려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하 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	---

주일예배 12시	수요일예배 7:30 pm	금요새벽기도: 6:00	아동, 학생, 청년부: 주일12시
----------	---------------	--------------	--------------------

## 교 회 소 식

- 다음주일일은 '종려주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고난주간 금식: 하루 한끼 금식-금식참가헌금 1일 \$1  
금식헌금은 이삭줍기를 통해 '기아어린이 2명'(필리핀, 태국) 후원금으로 보내드립니다.
- '약속의 아버' 정기기도회: 목요일(14일), 저녁 7:30, 교회
- 오늘만 예배시간 변경: 본교회 행사관계로 오늘은 12: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 예배 후 Tea Time도 본당 뒷편에서 갖겠습니다.
- 교회화장실 보수를 마쳤습니다.  
\*지난 1주간에 걸친 수고로 화장실을 Rest Room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잘 꾸며진 화장실을 보며 이보다 더 좋은 말은 없을겁니다"보기에 좋았더라"  
수고하셨습니다.
- 교우소식: \*정봉현 장로님(정희자 권사 부친)께서 내일(18일)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심을 기도드립니다
- 축하합니다: <결혼기념일> 김동구, 임주화 성도(17일), 오늘이군요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모처럼 병공간이 생기 시 연수 살았습니다. 교회정보에 믿음에겐 언약과 무슨 세상적인 시나리오  
책까지 마시고 잠깐동안이지만 살았던 옛 사랑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저녁 숲에 내리는 황금빛 노을이기보다는  
구름 사이에 뜬 별이었음 좋겠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버드나무 실가지 가볍게 덮으며 오르는 만월이기보다는  
동짓달 스무날 빈 눈길을 쓰다듬는 달빛이었음 싶어

꽃분에 가꾼 국화의 우아함보다는  
해가 뜨고 지는 일에 고개를 끄덕일 줄 아는 구절초이었음 해  
내 사랑하는 당신이 꽃이라면  
꽃 피우는 일이 곧 살아가는 일인  
콩팥 팔팥이었음 좋겠어  
-중략-

바람 많은 가을 강가에 서로 어깨를 기댄 채  
우리 서로 물이 되어 흐른다면  
바위를 깎거나 갯벌 허무는 밀물 썰물보다는  
물오리떼 쉬어 가는 저녁 강물이었음 좋겠어  
이렇게 손을 잡고 한세상을 흐르는 동안  
갈대가 하늘로 크고 먼 바다에 이르는 강물이었음 좋겠어  
-도종환-